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2020년 제1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
2. 일 시: 2020. 11. 13(금) 16:00~18:00
3. 발표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귀춘리(郭春丽) 부소장

1. 제14차 5개년 계획의 총체적 배치

□ 올해들어 중국의 지도부는 주요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고 제14차 5개년 계획의 지도사상과 원칙을 제시함.

- [중앙정치국회의(2020.7.30)]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건의"에 대해 연구
 - 14·5 계획 기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 목표와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한 후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하는 시작 단계이며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로 향하는 첫 번째 5년임.
 - 중국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직면해 있고 기회와 도전이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함.
 - 현재 전 세계는 세계 경제·정치 구도의 변화와 새로운 과학기술·산업 혁명이 진행되는 백 년만의 대격변을 겪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이 시대의 주제임. 동시에 국제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질적 발전(高质量发展) 단계에 들어섰으며 많은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하다는 문제점도 여전히 두드러짐.
 - 향후 5년간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의 신(新) 발전이념을 지속적으로 관철할 것이며 발전과 안전을 통합 추진하여 규모, 속도, 발전 수준, 구조, 효율, 안전이 일체화된 질적 발전을 달성할 계획임.

-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좌담회(2020.8.24)] 원활한 국내경제 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기
 -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이어 보호주의·일방주의가 대두하고 글로벌 불경기가 이어지며 경제·과학기술·문화·안보·정치 등 모든 부문이 심각한 변화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불안정한 변혁기에 진입했음.
 - 향후 일정기간 동안 중국은 더욱 어려운 외부환경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일련의 새로운 도전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함.
 -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발전 동력을 촉진하고 개혁의 심화를 통해 새로운 발전의 활력을 촉진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통해 국제협력과 경쟁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

- [중공중앙 19기 5중 전회(2020.10.26~29)] 오위일체(五位一體) 전략과 14·5규획의 주요 조치 발표
 - '오위일체 전략(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 추진
 - 14·5규획의 전반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2개 주요 조치를 발표함.
 - ①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기반으로 삼음.
 - ② 현대산업체제 발전의 가속화와 경제 체제의 고도화를 추진
 - ③ 강대한 국내시장을 형성하여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
 - ④ 개혁의 전면 심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
 - ⑤ 농업과 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향촌 진흥을 전면적인 추진
 - ⑥ 국토 공간 배치를 최적화시켜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과 신형 도시화를 추진
 - ⑦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문화의 소프트파워를 제고
 - ⑧ 녹색 발전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
 - ⑨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으로 협력·윈윈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
 - ⑩ 인민 생활을 질적으로 개선시키고 사회 건설 수준을 제고
 - ⑪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을 건설
 - ⑫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가속화하여 부국·강군을 실현

2. 새로운 발전구도 구축에 대한 전략적 평가와 정책 방향

1)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발전 전략은 그 기초가 튼튼하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큼.

□ 중국 경제는 이미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하였으며 수요-공급 체계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국내 대순환의 활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 [공급측면] 중국은 대규모의 시장주체와 완비된 산업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동력 수준도 대폭 제고됨.
 - 중국은 현재 1억 개 이상의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1-7월 매일 신규 기업이 약 6만 4,000개 설립됨. 이는 중국의 경제운영의 활력을 보여주는 것임.
 - 노동력 수준이 대폭 제고됨. 9억 명이 넘는 노동자 중 대학이나 전문기능 교육을 받은 노동자가 1.7억 명 이상이며 현재 신규 노동자의 평균 교육 연한은 13.6년 이상임. 이공계 졸업생 수는 계속해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

지하고 있음. 중국은 이전의 "인구 보너스"에서 현재 "엔지니어 보너스"의 시대로 전환됨.

- 중국은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완비된 산업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업제품 중 200여종의 제품 생산량은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제조대국이자 모든 공업부문을 보유한 유일한 국가임.

- [수요측면] 투자수요의 기회가 많으며 소비수요의 잠재력이 매우 큼.

- ① 투자 수요: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100조 위안에 육박하고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4억 명 이상의 중산층을 포함해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
 - 2030년까지 산업화·도시화가 빠르게 추진되면서 대량의 투자 수요를 견인하게 될 것임.
 - 특히 양로, 민생, 생태 보호 등 영역의 투자 수요가 많으며,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막대한 인프라 투자 수요가 존재함.
 - 중국의 제조업 발전 수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중·저수준으로, 향후 제조업의 고도화 및 업그레이드 관련 투자 수요가 많을 것으로 기대
 - 중국의 노동자 1인당 자본량(자본 장비율)은 세계 평균의 1/2, 서유럽의 1/3, 북미의 1/4수준으로 아직 낮은 수준에 처해있으므로 향후 노동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수요가 풍부함.
- ② 소비 수요: 중국의 소비는 의·식·주 중심의 소비에서 발전형, 향유형, 품질형 소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음.
 - 중국의 엔겔지수는 2019년 28.2%에서 2025년 25%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

그림 1. 2019년 중국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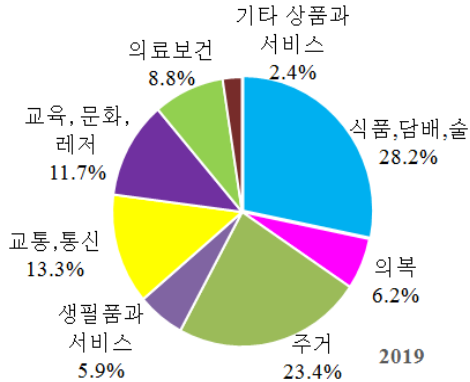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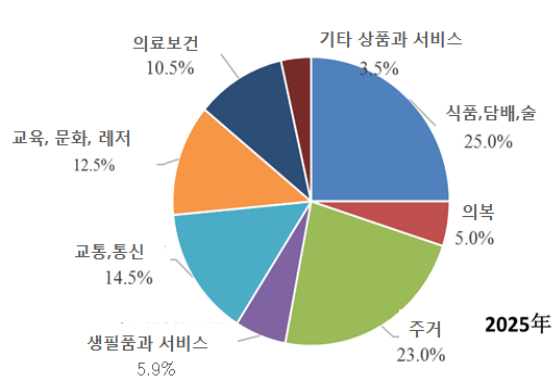


그림 2. 2025년 중국 항목별 소비지출 비중(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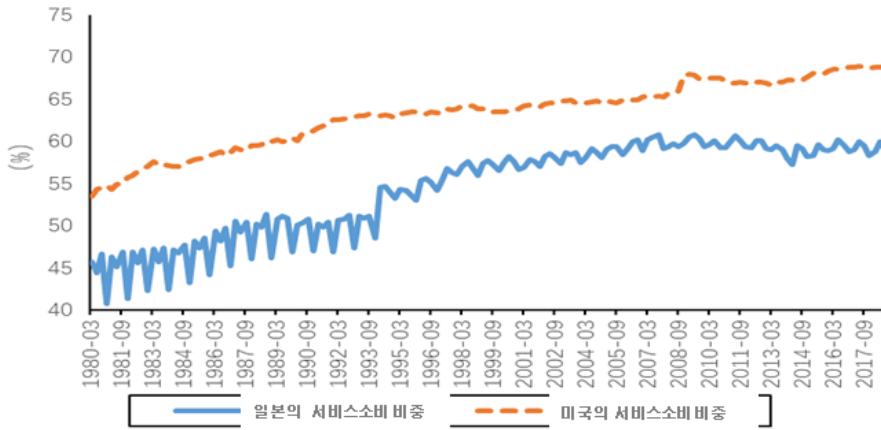
- 주민소비는 상품 소비 중심에서 상품과 서비스 병행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으며 의료보전, 교육·문화·레저 및 기타 서비스 등 서비스형 소비지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주민소비 지출 중 서비스형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9%이며 2025년에는 50%에 달할 전망

그림 3. 중국 전체 소비 중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의 비중(2019년) 및 예측치(2025년)



그림 4. 미국과 일본의 전체 소비 대비 서비스 소비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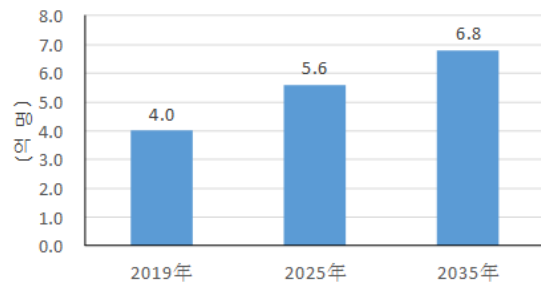


- 현재 중국의 중산층 인구수는 대략 4억 명 정도이고 2025년에는 5.6억 명에 달한 후 2035년에는 6.8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
- * 거대 규모의 중산층 인구는 중·고급 상품·서비스의 주 소비계층으로 향후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기능, 내용을 요구하는 소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임

표 1. 중국 중산층 인구수 및 비중

	절대소득 기준		상대소득 기준		종합평가	
	인구수 (억명)	비중 (%)	인구수 (억명)	비중 (%)	인구수 (억명)	비중 (%)
2025	5.76	41	5.43	38	5.6	40
2035	7.17	50	6.35	49	6.8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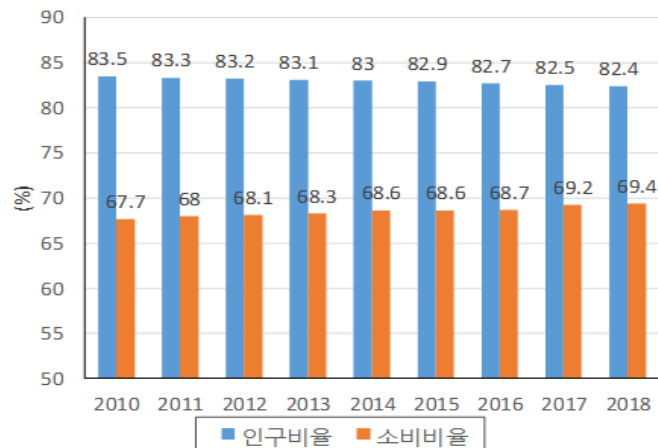
그림 5. 중국 중산층 인구수 현황



- 소비 주체의 변화가 서비스 소비의 발전과 소비 고도화를 견인하고 있음.

- * 예를 들어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70년대생은 건강관리, 레저 등 중·고급 소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80년대생은 주택, 교육, 교통·통신, 영유아 등 방면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음.
- * 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의 소비는 훨씬 다양하며 사교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주로 개성과 체험을 강조하는 유형의 소비와 온라인 소비의 새로운 추세를 이끌고 있음.
- 도시와 농촌간의 발전 격차가 줄어들면서 소비의 지역별 변화는 새로운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중소도시의 인프라 건설 수준이 제고되고 서비스가 개선됨에 따라 소비가 저발전 시장(下沉)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두드러짐.

그림 6. 전체 인구 및 소비에서 2·3·4선 도시가 차지하는 비중



- 다양한 유통채널, 24시간 상시 서비스, 전 품목 취급 등 구매시스템이 개선됨에 따라 새로운 소비 패턴이 형성되고 있으며 과학기술 제품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장비, 스마트 가전제품 등 신제품들이 새로운 소비 수요를 촉진하고 있음.

□ 국내 대순환을 주제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촉진은 새로운 시대 중국의 주동적인 전략적 선택임.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내수확대를 장기 발전전략으로 내세우면서 중국 경제정책의 중심은 점차 내수확대로 전환함. 내수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임.

그림 7. 중국의 경제정책 중심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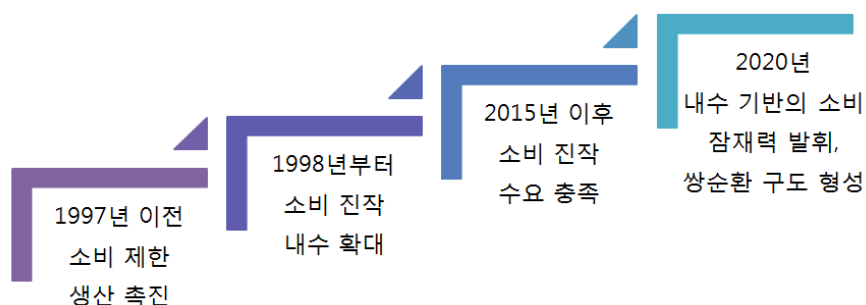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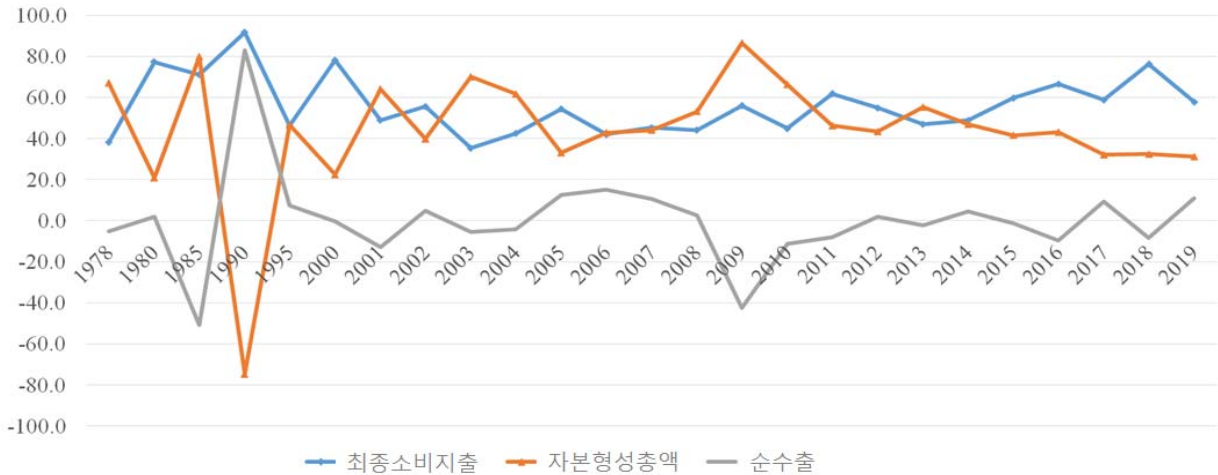


그림 8. 수요부문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2)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 전략은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전망이 밝음.

□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 전략은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동할 것임.

- 일반 국민들이 지향하는 아름다운 생활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내수확대를 기반으로 생산, 분배, 유통, 소비의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임.

□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 전략은 글로벌 경제 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할 것임.

-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국제 경제의 상호 연동과 양방향 순환을 촉진함.
- 글로벌 공급체인·산업체인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선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동력 제공할 것임.

□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 전략은 글로벌화 발전 추세에 순응하고 대응하게 할 것임.

- 원가절감이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추세는 점차 둔화되고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데 점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제도형 개방을 통해 국제 형세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며,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글로벌화 발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3) 국내·국제 쌍순환 발전 전략에 대한 고찰과 건의

□ 국내 수요를 확대하여 국내 경제 대순환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주민 소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소비의 녹색화·스마트화·고품질화를 통해 상품 소비의 품질을 제고 △서비스 소비의 취약점을 보완 △주거 소비의 합리화를 유도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과 새로운 모델이 신형 소비를 창출하는 것을 지원 △신형 소비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스마트화, 디지털화 개조) 등을 통해 주민소비 수준을 제고할 계획
 - 지역 내 특색이 있는 소비 중심지 건설을 유도
 - 대학생, 농민공 등 계층을 중산층으로 육성함으로써 중산층의 규모를 확대하고 거대한 소비 계층을 형성
 - 생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결정하는 소득분배 제도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중·저소득계층의 소득을 제고
- 취약부문에 대한 인프라 시설 투자를 확대함.
 - '양신일중(兩新—重: 신형 인프라 및 신형 도시화, 교통·수리 사업 등 중대 프로젝트)'을 추진하여 전통 인프라망을 완비할 계획, 특히 남방지역의 수재를 방지하기 위한 수리 사업과 현(縣)급 도시의 도시기능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것임.
 - 첨단과학기술 첨단 시설과 차세대 ICT 등 신형 인프라 시설을 선제적으로 배치할 계획
 - 공중위생, 응급물자 비축, 양로 서비스 등 사회 민생분야 인프라 시설의 취약 부분을 보완할 계획
 - 생태환경 보호 및 환경관리 분야의 투자 강화, 경제·사회 발전의 녹색화 전환을 추진
- 도·농 지역 간 협조발전 촉진을 통해 내수를 확대함.
 - 도시로 이주한 농촌유동인구에 대한 시민화(소수 대도시를 제외한 도시에서의 도시호적 취득 제한 조치를 취소 또는 완화, 상주인구와 기본 공공서비스의 연계 메커니즘 건립)를 추진할 것임.
 - 그 외에도 도시 주택 보장, 도시 철도 교통, 도시 개조 사업, 농촌 진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

□ 대외개방 수준을 제고하여 국내·국제 쌍순환의 상호 촉진을 추동할 계획임.

- 수입과 수출,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양자 무역 및 투자, 무역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계획
 - △수입 확대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범위 확대 △국경간 전자상거래·대외무역 종합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의 발전 지원 △기업의 해외투자(走出去) 유도 등을 추진할 것임.
- “일대일로” 전략의 질적 발전 촉진,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장강경제벨트 발전 등 국가전략의 연계발전을 강화할 계획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과 지역협조 발전전략의 연계를 통해 △내륙 개방 확대 △변경 지역의 개방 가속화 △연해 지역의 개방 수준 제고를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함.
- 무역 및 투자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라 규칙·규정·관리·표준 등 제도형 개방을 촉진하며, 하이난(海南) 자유 무역항과 자유무역구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
- 외국인 투자 안전에 대한 심사와 반독점 심사 제도를 완비하고자 함.
- 서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국가 및 국제기구와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적극 발전시켜 “일대일로” 전략의 질적 발전을 실현할 것임.

□ 자주혁신 능력을 제고하여 국내·국제 쌍순환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 혁신을 현대화 건설 전(全) 과정에서의 핵심동력으로 하고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전략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음.
- 세계 첨단기술·경제의 핵심 분야·국가의 중대 수요·국민의 생명 건강 등 여러 방면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국가를 부흥시키는 전략(科教兴国) △인재강국전략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실시하여 국가혁신체제를 완비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할 것임.
- 신기술 응용, 신제품 개발, 신산업 육성,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과 새로운 모델의 발전을 촉진할 것임.
- 산업발전에 병목이 되는 핵심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할 것임.
- 완비된 산업 체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양한 신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과학기술 성과의 산업화와 응용을 촉진함.
- 혁신자금이 기업에게 잘 조달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이 혁신의 주체로 발전하는 것을 촉진함.
- 개방적인 혁신을 통해 현재의 국제 기술 혁신시스템과 상호 통용되는 시스템·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외 혁신 주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임.

□ 현대 산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내·국제 쌍순환의 기초를 마련할 것임.

- 실물경제를 경제 발전의 중점 내용으로 하여 제조강국·품질강국·인터넷강국·디지털중국을 확고부동하게 건설할 것임.
- 산업 인프라의 고도화·산업체인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경제발전의 질과 효율 및 핵심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
- △신기술을 이용한 전통산업의 개조 및 고도화 추진 △AI, 5G, 첨단장비, IoT,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등 신흥산업 육성 가속화 △첨단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의 융합 발전 촉진 △산업체인 상에서 중상위 수준으로의 발전 등을 통해 제조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임.
- △제조업 전환과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수요에 맞춰 금융서비스, R&D 디자인 등 첨단 생산자 서비스업을 전문화 및 밸류체인 고도화 방향으로 발전 △도·농 주민의 소비 고도화 수요에 맞춰 건강양로, 관광레저 등 현대적 소비자 서비스업을 세분화와 고품질화된 방향으로 발전키는 등 국제표준에 맞는 현대 서비스업 발전을 가속화할 것임.
- △농업의 친환경·품질화·개성화·브랜드화·융합 발전 △농업의 산업·생산·경영체제 완비 △농업의 질적 발전과 효율을 증대 등을 발전 방향으로 하는 농업 현대화를 추진함.

□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국제 쌍순환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 효과적인 관리제도 및 풍족한 생활을 실현함.
 - △농업 현대화의 추진으로 농촌산업을 규모화 △농촌 발전구도를 최적화하여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 △농촌의 공공서비스를 완비하여 농촌의 문화변영을 촉진 △농민 소득을 제고시켜 농민들의 성취감·행복감을 증진 △신형 도시화 전략의 완비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협조발전과 향촌 진흥을 촉진함.
- 징진지(京津冀) 협동발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창장삼각주 일체화(长三角一体化), 황하유역 생태환경 보호 및 질적 발전 등 중요 지역발전전략을 심도 있게 실시할 계획

- 상대적으로 발달된 동부 지역과 현대 도시권에 생산요소가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수도권생태특별보호구(首都生态涵养发展区), 농산물주요생산지역(农产品主产区) 등 특수 유형 지역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할 것임.

□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국내·국제 쌍순환의 핵심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중공중앙 19기 4중 전회(2019.11)에서 발표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 견지와 완비,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 현대화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과 2020년 3~5월에 발표된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등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대한 의지는 아주 확고함.
- △농촌 집체경영 토지의 시장진입 등 공업용지의 시장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토지의 시장화 배분 추진 △호적제도 개혁을 심화하여 노동력의 합리적 유동 유도 △다양한 유형의 금융서비스 체계를 발전시켜 자본의 시장화 배분 추진 △국가 지식재산권의 유통·수익·처분 메커니즘을 고도화하고 특허기술과 지식재산권의 시장진입을 유도하여 기술요소 시장의 발전 촉진 △데이터정보 시장의 적극 발전 등을 추진하여 요소시장 체계 완비를 가속화할 것임.
- 또한 △등급과 유형을 구분한 혼합소유제 개혁을 심화(특히 국유기업 중점) △비공유제 경제(민영, 외자 등 유형의 기업)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는 공정한 제도 환경 조성 및 시장의 공정 경쟁 보장 등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주체를 육성할 것임.
- 지역 간에 여전히 존재하는 제도적 장벽을 철폐하고 표준적·개방적·경쟁적인 시장체계의 형성을 촉진할 것임.

질의응답(Q&A):

Q 1. 현재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 제정에 관한 건의"에서 제기된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구도"나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등 여러 가지 발전 방향과 발전 전략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되는 것인지, 즉 지도자가 의견을 제기하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부조직의 토론과 연구의 과정이 뒷받침되는 것인지? 내년 3월에 발표될 14·5계획의 내용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정되는 것인지?

A 1. 우선 국내 대순환을 주제로 하고 국내·국제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은 시진핑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문제점과 복잡한 국제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도출된 전략적 선택임.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경제사상은 내용이 아주 풍부한데 그중에는 뉴노멀 시대의 중국 경제,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 중인 중국 경제, 공급 측 구조 개혁 및 국내·국제 쌍순환의 발전 전략 등이 있음. 이러한 경제사상은 모두 중국경제에 이미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향후 중국 경제 발전의 방향이며 앞으로 확고부동하게 실시할 것임. 이런 경제사상은 시진핑 주석의 주도적인 지도하에 중국재정위원회 등 여러 상부조직의 신중한 사고와 토론을 거쳐 형성된 것임.

Q 2.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강(小康) 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한 후 앞으로의 목표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의 차이는 무엇인가?

A 2. 중국이 처음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0년대 말~1980년대 초 시기에는 중국의 1인당 GDP가 100달러 정도에 불과한 아주 빈곤한 나라였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먹는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었음. 1987년 제13기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제시한 "3단계(三步走) 발전전략"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원바오(温饱) 사회 건설 △다소 풍요로운 생활수준으로 진입하는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했음. 중국에는 많은 빈곤인구가 있으므로 샤오강(小康) 사회 실현의 아주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빈곤퇴치 문제이며 2020년 연말까지 현행 기준 농촌 빈곤인구를 완전 퇴치할 계획임. 그러므로 샤오강 사회는 기본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현대화 국가에 대한 정의는 각 나라의 실정이나 처한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나라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목표라고 생각함. 중국이 샤오강 사회 건설 목표를 실현한 후 다음 목표는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기본실현" 및 "2050년 부강하고 민주·문명적이며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2050년에 이르러야 현재 한국의 발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됨.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며 14억 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인구를 가졌다는 점에서 2035년과 2050년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1인당 GDP 수준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제총량의 제고를 뜻하는 것임. "샤오강 사회" 건설과 "현대화국가 건설"의 차이를 요약한다면 "샤오강 사회" 건설은 주로 국민들의 생활의 질, 1인당 GDP 등 지표로 가늠하는 것인 반면 "현대화국가 건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산업 발전, 도·농 지역 간 조화 발전, 경제의 녹색화 발전 등 전방위적인 목표 실현을 의미하는 것임.

Q 3.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고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원대한 전략에 대해 소개해주셨는데 이런 전략을 잘 실시하려면 중소국가, 약소국가, 저개발 국가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됨. 중국이 세계 최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런 국가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가?

A 3. 중국은 언제나 대외적으로 평화를 주장하고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을 달성하려고 하며 다른 나라를 압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는 패권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임. 또한 강대한 시장 우위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발전은 기타 중소국가나 약소국가에도 기회가 될 것이며 절대로 기타 중소국가나 약소국가의 발전 기회를 빼앗지는 않을 것임. 중국은 평화와 공동발전을 추구함.

Q 4. 토지와 자본의 시장화 배분을 추진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 토지와 자본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라고 생각됨.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토지와 자본의 시장화 배분은 어떤 의미인지? 개인소유를 인정한다는 의미인지?

A 4. 많은 나라들의 토지 소유제도는 사유제임. 중국의 경우 도시 토지는 국가소유이고 농촌 토지는 촌집체 소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공유제임. 현재 중국의 토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는 도시화 발전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도시 주변의 농촌 토지를 도시 건설용지로 사용하게 될 때 지방 정부가 촌집체로부터 저가로 구입하여 고가로 개발상이나 기업에 판매하면서 촉발된 현상임. 이 경우 촌집체나 농민들이 실제로 획득하는 이익은 굉장히 낮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정부는 향후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우선으로 하며 향촌 진흥을 전면 추진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농촌 토지가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그 가치를 확대하고 이에 따라 증가된 소득이 촌집체와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촌의 생산·생활 조건 개선에 사용되도록 할 것임.

Q 5. 중국의 대학생 졸업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81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 대학생 취업자 수가 대략 700만 명 정도였음. 14차 5개년 계획의 내용 중에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은 어느 정도인가? 경제성장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대학생 졸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 실업자 수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됨. 중국이 앞으로 대학생 졸업자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A 5. 중국의 매년 대학생 졸업자 수는 대략 780만 명 정도인데 대학생 취업 문제는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됨. 중국의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매년 1,000만 개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음. 물론 그중에서 대학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민공이나 기타 인원도 포함하고 있음. 그렇지만 중국 대학생의 실업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교육체제와 산업구조의 부조화 문제에 있음. 중국의 대학 교육은 학문 연구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직업 전문기능 분야가 부족하다보니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노동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음.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1·2선 도시에서 취업 준비생으로 회사 취직의 기회를 바라고 있는 반면에 많은 기업들은 생산·기술직 인원을 모집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가 존재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며 산업 발전 수요에 따른 교육체제 개혁이 필요함.

Q 6. 중국의 농민공에 대한 호적 제도 개혁은 2014년에도 제기되었지만 아직 개선된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되며 농민공들이 같은 중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2등 시민의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됨.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농민공이 도시에서 시민으로 정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호적제도의 개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①중국에서 앞으로 중소 도시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농민공의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②만약 추진한다면 도시에서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주택서비스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A 6. 중국의 신형 도시화 계획은 2014~20년의 기간 동안에 1억 명의 농민공 호적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를 제기한 바 있음. 농민공의 호적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농민공이 도시 주민과 기본적으로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함. 이 1억 명이라는 지표는 2020년 연말까지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며 현재 중소도시에서 잘 추진되고 있음. 베이징(北京)이나 상하이(上海) 같은 대도시는 자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상주인구수를 제한(베이징은 2,300만 명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농민공의 호적 전환을 해결하는데 제한이 있음. 그러나 현재 중소도시들에서는 농민공의 호적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즉 도시로 이주한 농민공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재정을 설립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농민공 4자가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구조임. 그리고 사실상 동부연해 지역은 산업 발전의 수요에 따라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수요와 동력이 있음. 올해 초 기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업을 재개하지 못하던 기업들이 전용 열차를 이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노동자들을 업무 복귀시켰던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안정된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수요와 동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람을 아주 중요한 생산요소라고 보고 인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수요는 호적제도 개혁의 추진에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 농민공을 많이 수용하는 지역에 대해 ①중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②도시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농촌 토지를 확대하며 ③중앙정부의 중대 인프라 건설과 산업 투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등 중앙정부의 노력도 있음.

Q 7. 14·5규획 중에 국제적인 외부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에는 많이 언급되지 않았고 특히 최근 중국에서 상수화된 미중갈등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음. 14·5규획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이라고 하셨는데 미국과의 갈등 특히 핵심기술 분야에서의 압박(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제한이나 중지 등)을 받고 있는 배경 하에서 첨단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중국이 5G나 AI 등 기술 분야에서는 강하지만 산업의 기초가 되는 반도체 분야는 아직 경쟁력이 약하고 그 약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집중적으로 압박·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자립·자강을 이루려고 하는지?

A 7. 앞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대국 관계가 될 것이며 그중에서 미중 관계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됨. 중국은 늘 평화 공존을 주장해왔으며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음. 중국은 14억 인구를 가진 대국으로서 그 경제총량을 놓고 볼 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규모면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필연적인 추세라고 생각함.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국가가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과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임.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반대 입장임. 미국은 현재 중국에 대해 일부 기술적

인 압박과 봉쇄, 비동조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난 미·중 무역분쟁 이후 새로운 대립이라고 볼 수 있음. 중국의 혁신은 여전히 개방적인 혁신이며 글로벌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은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싸우는 것이 두렵지 않다. 싸워야 한다면 싸운다"는 입장임. 기술혁신에 있어서 중국은 선진 국가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가 있는 반면 일부 분야는 앞서가는 분야도 있음. 중국은 수준 높은 노동력과 거대한 응용시장의 우위를 통해 산업발전에 병목이 되는 핵심기술 문제를 점차 해결할 것임. 반도체의 경우,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 단계 낮은 수준에 처해 있음. 현재 선전(深圳) 등 동남부 연해지역에서는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은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기술을 발전시킬 것임. 만약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격리시켜 중국 시장을 잃는다면 이는 미국에게도 불리할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의 발전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함.